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UCI]I804:24011-200000267513

2019년 8월

석사학위논문

#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관계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대학원

철 학 과

오 하 나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관계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을 중심으로-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tical and the Social

-focused on Hannah Arendt's *The Human Condition*-

2019 년 8 월 23 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철 학 과

오 하 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관계

-한나 아렌트의『인간의 조건』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설 헌 영

이 논문을 문학 석사학위 신청논문으로 제출함.

2019 년 4 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철 학 과

오 하 나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오하나의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교수 이재영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설헌영 (인)

위원 조선대학교 교수 이철승 (인)

2019 년 5 월

## 조선대학교 대학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목 차

논문초록 ····· ii

제1장 서 론 ····· 1

제2장 정치적인 것의 의미 ····· 3
제1절 고대 그리스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 3
제2절 공적 영역에서 드러난 행위의 성격들 ····· 8
제3절 다원성으로서의 행위 ····· 13

제3장 사회적인 것의 의미 ····· 18
제1절 사적 영역의 확대로서 사회 ····· 18
제2절 부의 증진과 정치의 상실 ····· 21
제3절 현대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회복의 가능성 ·· 26

제4장 결 론 ····· 30

【참고문헌】 ····· 32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ABSTRACT

##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olitical and the Social

- focused on Hannah Arendt's *The Human Condition*-

Oh Hana
Advisor : Prof. Sul Heonyeong, Ph.D.
Department of Philosophy,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distinguish between 'the political' and 'the social' in Hannah Arendt's *The human condition*

According to Arendt, in the period of ancient Greece, 'public realm' and 'private realm' were distinguished as different places. However, this division is destroyed with the emergence of society. The emergence of modern society has made the distinction between the public realm and the private realm unclear and has led to the emergence of a new realm of the social. Society is an area where one purpose, the productivity, is dominated, as in the realm of ancient private homes. Society develops when it is assumed to be a single subject. It substitutes all people for laboring animals. Society is rooted in one-ness. But the political is based on plurality. Plurality is established when human equality and each distinction is revealed. Human beings are equal in that they are the only newborn, and speech and action reveal the distinction of each person.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The political is hard to survive in the constant (re) production of life. Nevertheless, Arendt finds the basis of action for saving man in the cyclical process of nature. If there is no faith in action, then humans will live only as a person who follows the laws of mortality, which is destined to die, or rushes towards death, following the cyclical process of nature. It is like devastating humanity. The action always reminds us that man was born not to die but to begin. The speech and action that take place among people are the driving forces that enable us to form new web of relationship with others and start new processes.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제1장 서 론

현대사회는 경제적 가치라는 하나의 가치가 지배하는 사회이다. 먹고 사는 문제, 더 많은 이익, 더 큰 성장이나 발전은 개인이든 사회이든 국가든 인류든 상관없이 모두가 추구해야 할 중요한 문제들로 여겨진다. 그래서 경제적 가치를 제외한 다른 가치들은 쉽게 무시되고,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무리로부터 배제되기도 한다. 사회에서 경제적 가치는 삶의 과정을 추동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되었으며, 그것을 매개로 인간은 결탁한다.

그러나 인간은 사회적 가치의 관점에서는 불필요해 보이는 다른 가치를 추구하기도 한다. 인간은 자기 존재의 의미를 자문하기도 하고, 그 의미를 좇으며 살기도 한다. 나아가 타인과 이익 관계가 아닌 다른 종류의 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모든 것을 자기화하려는 사회 속에서도 인간은 완벽하게 사회에 포섭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인간이 사회적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를 형성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 그것이 정치의 영역이라면 정치는 도대체 무엇인가? 왜 사회에서 정치는 자신의 고유한 영역을 존속하기가 어려운가? 도대체 사회가 무엇이기에 그러는가? 정치 영역의 지속을 위해서는 사회는 배척되어야 하는가? 정치와 사회는 양립할 수 없는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논문은 현대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 1906-75)의 『인간의 조건』(*The Human Condition*)[1]에 나타난 정치와 사회 또는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과 사회적인 것(the social)의 구분, 그리고 그 개념들 각각의 의미를 밝혀보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 그래서 왜 사회에서 정치는 상실되는지를 따져볼 것이다. 나아가 오늘날 사회에서 정치가 어떻게 자신의 고유한 영역을 지켜 나갈 수 있을지 모색해 볼 것이다.

본 논문은 아렌트의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의미를 규명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다룰 것이다.

2장에서는 정치적인 것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정치는 현상으로서 드러난다. 왜냐하면 정치는 다수의 사람들이 공적인 장소에서 행하는 구체적인 공적 활동이기 때문이다. 아렌트는 이러한 정치가 구현되었던 곳을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서 발견하고 있다. 그래서 1절에서는 고대 그리스의 공적 영역(public realm)과 사적 영역(private realm)의 구분과 각각의 의미를, 그리고 이러한 영역 간의 구분이 지닌 중요성을 다룰

1) 한나 아렌트, 『인간의 조건』, 이진우 · 태정호 옮김, 한길사, 201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것이다. 2절에서는 폴리스와 같은 공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활동이 어떠한 모습을 띠었는지 살펴볼 것이다. 아렌트에 따르면 공적 영역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활동은 행위(action)이므로 행위가 가지고 있는 성격들을 분석할 것이다. 행위의 성격들이 지닌 핵심은 인간은 타인과 함께 살아가며,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3절에서는 이러한 행위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지 규명해볼 것이다.

3장에서는 사회적인 것의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1절에서는 고대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간의 구분이 중세에 붕괴되기 시작하여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으로까지 완전히 확대된 근대 사회를 다룰 것이다. 2절에서는 근대 사회는 사회 자신의 발전, 즉 생산성 증대를 목적으로 삼기 때문에 이러한 발전이 결국 사적 소유도 파괴시킨다는 점을 밝혀볼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파괴가 왜 정치의 상실을 초래하는지를 다룰 것이다. 3절에서는 소유를 파괴하는 사회에서 정치가 자신의 고유한 영역을 유지하기는 어렵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정치가 회복되고 지속할 수 있으려면 어떠한 조건이 마련되어야 하는지를 볼 것이다.

본 논문의 연구는 문헌 연구의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본 논문은 주로 아렌트의『인간의 조건』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였다.『인간의 조건』에는 서양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부터 근대 사회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조건에서 정치가 구현되었고 어떠한 조건에서 정치가 상실되었는지에 대한 아렌트의 역사적 분석이 서술되어 있으며, 그가 생각하는 정치와 사회가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중요한 개념들이 언급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인간의 조건』은 본 논문의 목적, 즉 아렌트의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각각의 의미 고찰을 위한 핵심적인 문헌이 된다. 나아가 본 논문의 주제와 관련 있는 아렌트의 다른 문헌들과 국내 연구 논문들도 참고하여 본문 속에서 적절하게 활용하였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제2장 정치적인 것의 의미

## 제1절 고대 그리스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정치는 다수의 사람들이 공적 장소에서 행하는 공적 활동이다. 아렌트의 정치를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기에서 말한 공적 장소, 공적 활동에서 '공적'이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인간의 조건』에 나타난 공적이라는 용어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누구나 공중 앞에 나타나는 모든 것을 보고 들을 수 있고 따라서 가능한 한 가장 폭넓은 공공성을 가진다는 것"[2]을 의미한다. 둘째, 모든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세계 자체'를 의미한다.

첫 번째 공적이라는 말은 공적인 현상을 지시하는 말이다. 공적 현상은 한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고 모두가 지각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을 지닌다. 이러한 현상은 감각기관을 지닌 인간이 지각하지 못한다면 있을 수 없다. 지각된 현상은 사람들에게 실제로 존재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즉 지각하는 사람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사물들, 타인들, 이야기, 소리, 냄새 등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상은 인간에게 실재감, 현실감을 형성해 준다. 현상이 실재(reality)를 구성한다는 아렌트의 생각[3]은 플라톤 이래의 전통적인 형이상학과는 반대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려주기 때문에『인간의 조건』에서 중요한 입지를 차지한다. 또 이러한 생각은 이후의 저작 『정신의 삶 1: 사유』(1978)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주목해야 한다. 이 저작에서 아렌트는 실재라는 말을 존재라는 말로 변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세계의 시각에서 볼 때, 세계에 태어난 모든 피조물은 존재와 현상이 일치하는 세계에 적합한 조건들을 갖추고 있다. 살아 있는 존재인 인간과 동물은 세계 속에서 있는 것만이 아니라 세계의 일부를 구성한다. 왜냐하면 이들은 동시에 주체이며 대상, 다시 말해 지각하면서 지각되는 존재이기 때문이다.[4]

---

2) 아렌트,『인간의 조건』, 이진우 · 태정호 옮김, 한길사, 2015, 102쪽.
3) 같은 책, 102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위의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은 서로에게 현상으로 드러나서 지각하고 지각될 수 있기 때문에 실재를 구성한다. 이러한 실재는 세계를 이룬다. 현상과 실재를 일치시키는 아렌트의 입장은 현상과 이 현상을 배후에서 성립시키는 실재를 분리시켰던 플라톤의 입장과 반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플라톤의 이분법적 세계관은 결국 다양한 현상이 펼쳐지는 세계가 소외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플라톤처럼 시공간을 초월해 있는 실재의 관점에서 인간사를 규정하려고 하면 여기에서 나타나는 다양성, 우연성, 불확실성, 무상성 등이 쉽게 왜곡되거나 배제되기 때문이다.[5] 그리고 플라톤의 시각에서 실재는 인간이 추구해야할 참된 세계로 간주되기 때문에 현상 세계는 현실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못한다. 인간에게 비현실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현상은 결국 소외된다. 세계가 소외되면 인간에게 가장 확실한 것으로 다가오는 것은 인간 자신의 신체, 자아이다.[6]

두 번째 공적이라는 말은 '세계 자체'를 가리킨다. 이때 세계란 사적인 소유지와는 구별되는 모든 인간에게 공통된 것으로서, "인간이 손으로 만든 인공품과 인위적 세계에 거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연관"[7]된 세계를 뜻한다. 이 맥락에서 세계는 협의의 의미를 지닌다. 즉 모든 유기체 삶의 일반적 조건인 자연으로서의 지구가 아니라, 모든 인간의 삶이 영위될 수 있는 거처, 즉 인공적 사물 세계를 뜻한다.[8] 공동의 사물 세계는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발생하는 사건들도 공동의 세계에서 발생한 것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해당된다. 따라서 공적인 장소성을 내포하고 있는 인공적 세계와 그 안에서 발생하는 사건들은 세계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된 것으로 여겨진다.[9]

---

4) 아렌트, 『정신의 삶 1: 사유』, 39쪽.

5) 김비환, 『축복과 저주의 정치사상』, 한길사, 2001, 128-129쪽 참조.

6) 이호진은 서구 정치철학의 전통 안에서 현상과 존재의 이분법이 유지될 수 있었던 이유가 현상이 존재의 실제를 보장해주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러한 전통은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으로서 세계로부터의 탈퇴와 자아로의 회귀를 특징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이호진, 「정치회복과 반성적 판단: "아렌트의 논점을 중심으로"」,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10-11쪽 참조.

7) 아렌트, 『인간의 조건』, 105쪽.

8) 『정신의 삶 1: 사유』에서는 더 넓은 의미에서 세계를 말하고 있다. "자연적인 것과 인위적인 것,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잠정적인 것과 영구적인 것 등 수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37쪽.

9) 박준호는 두 번째 공적이라는 말과 관련해서 공적 세계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인간이 세계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인공적인 사물세계 내지는 그 안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건들이 인간에게 '공동으로' 속해 있음을 의미한다." 박준호, 「한나 아렌트의 정치행위이론 분석-제기된 쟁점들의 종합과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러한 맥락에서 알 수 있는 점은 공적 세계는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 모두의 관심을 받는 대상이 된다는 점, 그리고 인간은 항상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점이다. 아렌트는 세계와 인간의 관계를 탁자에 빗대어 설명하기도 한다.

> 세계에서 함께 산다는 것은 본질적으로, 탁자가 그 둘레에 앉는 사람들 사이에 자리잡고 있듯이 사물의 세계도 공동으로 그것을 취하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모든 사이(in-between)가 그러하듯이 세계는 사람들을 맺어주기도 하고 동시에 분리시키기도 한다.[10]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세계는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여 그들을 맺어주는 교집합 역할을 한다. 세계는 한 사람에게만 속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속하는 것이며, 한 사람만의 관심 대상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관심 대상이다. 세계가 공통적인 것으로 여겨져서 사람들이 세계에 대한 공동의 관심을 잃지 않고, 세계 안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해 함께 토론하는 공론 영역이 유지될 때, 인간은 자연적 시간의 파멸에 의한 자신의 유한성을 세계 속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동일한 세계를 매개로 결합된 사람들은 공동의 것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행위하며 기억할 수 있기 때문이다. 기억하는 활동은 한 사람이 죽는다 하더라도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그 사람의 의미를 세계 속에서 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 기억과 이야기하기는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단순히 마음속으로 재생하는 것이나 단순히 언어를 전달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야기하기는 의미를 현재화하는 과정이다.[11] 인간은 과거의 일들을 현재의 시점으로 불러와 타인들과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 의미를 발견한다. 의미는 기억되고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하게 하는 계기가 된다.

공동 세계의 파괴는 더 이상 세계가 공통적인 것으로 여겨지지 않아서 공동의 관심사가 되지 못하며, 타인과 이야기하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서 서로 다른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아렌트는 공동 세계의 파괴의 조건을 고립(isolation)이라고 말한다.

---

분석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31쪽.

10) 아렌트, 『인간의 조건』, 105쪽.

11) 박 혁, 「사멸성, 탄생성 그리고 정치」, 『민주주의와 인권』 제9집,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9, 258쪽 참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공동 세계의 파괴는 대개 한 대상이 인간의 다원성 속에서도 자신의 동일성을 드러내고 유지할 수 있는 다양성이 파괴됨으로써 실행된다. 이러한 공동 세계의 파괴는 근본적인 고립의 조건에서, 즉 독재의 경우처럼 누구도 자신 이외의 사람들과 협동하고 의사소통할 수 없는 조건에서 일어날 수 있다.[12]

위의 인용문에서 고립은 독재의 경우처럼 타인과 함께 있을 필요가 없는 경우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립은 공동의 관심 대상인 공동의 세계로부터 벗어나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다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는 과정이 불필요한 경우는 공동 세계를 벗어날 때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아렌트는 고립에 대해, "인간들이 공동의 관심사를 추구하면서 함께 행동하는 삶의 정치 영역이 파괴되었을 때, 그들이 내몰린 막다른 골목"[13]이라고 말한다.

아렌트의 '공적'이라는 말이 누구나 보고 들을 수 있는 실재로서의 현상, 공적인 장소성과 관련된다면, '사적'이라는 말은 그와 반대로 누구나 보고 들을 필요가 없는 것 또는 나타날 필요가 없는 것, 사적인 장소성과 관련된다. 오늘날 현대인들에게는 거의 잊혀 졌고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본래 사적이라는 말은 어원적으로 어떤 것이 '박탈된'(deprived)이라는 의미를 지녔다.[14] 공적 영역의 관점에서 볼 때 사적 영역에서 박탈이 의미하는 것은 인간에게 진정으로 필수적인 어떤 것이 박탈됐음을 뜻한다.

> 타인이 보고 들음으로써 생기는 현실성의 박탈, 공동 사물 세계의 중재를 통해 타인과의 관계를 맺거나 분리됨으로써 형성되는 타인과의 '객관적' 관계의 박탈, 삶 자체보다 더 영속적인 어떤 것을 성취할 수 있는 가능성의 박탈, 사적 생활의 이러한 박탈성은 타인의 부재에 기인한다.[15]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박탈이 의미하는 것은 첫째, 누구에게나 보이고 들리는 공적 현상에서 비롯되는 현실감의 박탈, 둘째, 공동 세계를 매개로 맺어진 타인과의 객관적인 관계, 즉 내가 타인에게 드러나고 타인이 나에게 드러나는 객관적인 관계의 박탈, 셋째, 타인과 함께 이야기하고 기억하는 활동을 통해 세계 안에서 의미를 지속시킬 수 있는 가능성의 박탈이다. 이러한 박탈들은 결국 타인의 부재에서 기인한다.

---

12) 아렌트, 『인간의 조건』, 111쪽.
13) 아렌트, 『전체주의의 기원 2』, 이진우, 박미애 옮김, 한길사, 2017, 277쪽.
14) 아렌트, 『인간의 조건』, 112쪽.
15) 같은 책, 같은 곳.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타인은 동일한 세계 안에서 함께 살지만 나와 다른 위치에 있는 사람이다. 공동의 것에 대해서 나와는 다른 관점에서 생각하고 말하는 존재라는 것이다. 타인과의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다는 것은 나와 타인에게 드러나는 공적 현상이 부재하며, 나와 타인 사이를 매개해주는 공적 세계가 없다는 것을 뜻한다. 타인과의 관계도 공적 세계와의 관계도 없는 것이 사적인 삶의 특징이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간의 구분과 각각의 의미와 관련해서 아렌트는 그 전범을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 발견하고 있다. 즉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의 공간적 구분이 실재했던 시대는 고대 그리스 폴리스 시대였다.

그리스인들에게 두 영역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원리를 중심으로 형성된 것으로 이해되었다. 공적 영역으로서의 폴리스는 자유(freedom)라는 중심 원리로, 사적 영역으로서의 가정은 삶의 필연성(necessity)이라는 강력한 중심 원리로 형성되었다.

아렌트에 따르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자유로운 삶의 방식과 그렇지 않은 삶의 방식을 구분했고, 자유로운 삶의 방식이 참된 삶(bios)의 방식이라고 보았다. 자유로운 삶의 방식은 신체에서 기인하는 삶의 필연성 때문에 행해질 수밖에 없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그러한 족쇄에서 자유로운 삶의 방식을 의미한다. 즉 "아름다운 것을 주어진 그대로 소비하며 육체적 쾌락을 향유하는 삶, 폴리스의 국사에 관여하는 삶, 마지막으로 영원한 것을 탐구하고 관조하는 데 헌신하는 철학자의 삶"[16]이다.

이와 반대로 자유롭지 못한 삶의 방식은 생존이라는 필연성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는 방식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생존의 필연성에 매여 있고, 주인의 지배에 종속된 노예와 같이 노동하는 삶, 제한된 기간 동안 이동의 권리가 포기된 장인의 제작하는 삶, 그리고 상인의 탐욕적인 삶이 해당된다.[17] 이러한 삶의 방식은 생존의 절박함에 얽매여서 삶에 필수적이거나 실용적이고 유용한 것들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활동들이었기 때문에 자유로운 삶의 방식이 되지 못했고 동물적인 삶과 유사하다고 이해되었다.

전적으로 생물학적 삶의 필요와 욕구에 얽매여 움직이는 가정 조직체에서 나타나는 활동 양상은 노동의 형태를 띠었으며, 반대로 필연성으로부터 자유로운 시민들이 모여 형성했던 정치적 조직체에서는 그 양상이 토론과 행위의 모습을 띠었다. 사적 영역에서 삶의 필연성은 신체의 반복적인 성장과 부패에 발맞춰 행해지는 노동을 하지 않을 수 없게 했고, 노예에 대한 폭력은 가장이 자신의 필연성을 극복하고 자유의 영역으로 진입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으로 여겨졌다. 필연성 때문에 발생하는 명령과 복종 관계

16) 같은 책, 61-62쪽.
17) 같은 책, 같은 곳 참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는 말이나 행위가 없는 관계이다. 이와 반대로 명령하는 사람도 복종하는 사람도 없다는 점에서의 평등이 실현되었던 곳은 오로지 정치 영역이었다.[18] 아리스토텔레스는 언어와 행위만이 정치적 삶을 구성한다고 보았고 이 두 활동으로부터 인간사의 영역이 발생한다고 보았다.[19]

그리스인들은 자유와 평등이 실현되는 공적 영역과 필연성을 충족시키는 사적 영역 간의 구분을 분명히 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에 존재했던 경계, 즉 사적 영역의 어두움이 공적 영역으로까지 잠식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공적 영역의 빛이 사적 영역으로까지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울타리, 담이 그 두 영역을 공간적으로 분리시켜 주었다. 폴리스 시대에 울타리, 담은 법률과도 같았다.

> 담이 없다면 집의 집합체인 도시(asty)만 존재하지 정치적 공동체인 도시 국가는 존재할 수 없다. 담벽과 같은 이 법률은 신성하였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중요한 것은 그 담 자체가 아니라 그 안에 들어 있는 것이었다. 담 없이 소유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법의 담벽 없이 공론 영역은 결코 존재할 수 없다. 담이 가족의 생물학적 삶의 과정과 소유를 보호하는 경계라면, 정치적 삶(공론 영역)을 둘러싸서 보호하는 울타리였던 것이다.[20]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그리스인들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경계를 설정하였다. 사적 영역은 인간의 생물학적 필연성을 충족하고 거주지를 보호하는 영역이었고, 공적 영역은 이러한 필연성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주지가 있었던 가장이 시민으로서 자유로운 삶을 살도록 보장하는 영역이었다.

## 제2절 공적 영역에서 드러난 행위의 성격들

고대 그리스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은 인간의 정치적 삶을 위해 필요했다. 정치적 삶은 언어를 통한 토론과 행위에 의해 이뤄진다. 그렇다면 정치가 실현되는 공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인간의 행위가 어떠한 성격들을 지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18) 같은 책, 84쪽 참조.
19) 같은 책, 77쪽 참조.
20) 같은 책, 117-118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아렌트는 인간의 근본적인 활동을 노동(labor), 작업(work), 행위(action)로 구분하고 있다. 노동은 인간 신체의 생물학적 과정에 상응하는 활동이며, 이 활동의 근본 조건은 삶 자체이다. 작업은 자연적인 환경과는 전적으로 다른 인공적 사물 세계를 만드는 활동이며, 이 활동의 근본 조건은 사물에 대한 의존성이다. 행위는 인간들 사이에서 직접적으로 이뤄지는 활동이며, 그것의 필수적인 조건은 다원성이다.

행위는 항상 공동 세계에 사는 다수의 사람들 사이에서 행해지는 활동이다.[21] 다수의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행위의 성격들로 네 가지를 말할 수 있다. 즉 그것은 행위의 무제한성(boundlessness), 예측불가능성(unpredictability), 환원불가능성(irreversibility), 그리고 비주권성(non-sovereignty)이다. 무제한성은 사람들 사이에 맺어졌던 관계를 허물고 새로운 관계를 확립하려는 성격을, 예측불가능성은 행위가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지 알 수 없는 성격을, 환원불가능성은 예측할 수 없었던 행위의 결과를 일어나기 이전의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는 성격을, 비주권성은 행위자가 행위의 결과를 의도적으로 통제하거나 지배할 수 있는 없는 성격을 나타낸다. 아렌트에 따르면 이 네 가지 성격들은 인간 행위의 본질을 이룬다. 이러한 성격들은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새로운 행위를 하게 하는 동력이 되기 때문이다. 행위의 지속은 정치의 지속을 의미한다.

어떻게 행위의 성격들이 정치의 지속으로 연결되는지를 밝혀보기 위해 우선 사람들 사이에서 형성되는 인간관계망을 살펴보아야 한다.

한 사람은 세계 안에 태어나고 그 안에서 살아간다. 말과 행위는 사람들이 함께 거주하는 곳인 공동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이뤄진다. 인간은 그들 사이에 있는 객관적인 사물 세계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그들의 관심은 그 세계로부터 발생하고, 말과 행위는 항상 세계를 지향한다. 어떤 대상에 대한 말과 행위는 행위자가 무엇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가 누구인지를 드러낸다. 이때 사람들과 상호적으로 말하고 행위함으로써 그들 사이에 형성된 주관적인 중간영역을 아렌트는 인간관계의 그물망(web of relationship)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 행위하고 말하는 주체의 현시는 가장 객관적인 교제를 포함한 모든 인간관계를 구성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가진 물리적, 세계적인 중간영역은 마치 전혀 다른 중간영역에 의해 덮혀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전혀 다른 이 중간영역은 실천행위와 언어행위에 의해 구성되어 있으며, 사람들이 상호직접적으로 행

21) 같은 책, 55쪽 참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위하고 말할 때 생성된다.[22]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관계의 그물망은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말하고 행위함으로써 생성된다. 그런데 이러한 관계의 그물망은 무수히 많은 이야기, 의지, 의도 등이 얽혀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촉발되는 말과 행위가 지향하는 목표는 실현되기가 너무나도 어렵다. 달리 말해 어떤 행위자가 개시한 말이나 행위의 결과는 다른 행위자에게 또 다른 말과 행위를 하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는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이 함께 살아가는 한 말과 행위의 과정은 무한하다. 이때의 과정은 작업과 같이 명확한 시작과 끝이 있는 과정이 아니라 시작은 있으나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지는 알 수 없는, 그래서 끝이 불분명한 과정을 의미한다.

> 행위자는 언제나 행위하는 다른 존재들 사이에서 그리고 그들과 관계 속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는 단순한 '실행자'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고통을 받는 자이다. (.....) 그리고 하나의 행위로서 시작되는 이야기는 그 행위에 잇따르는 행동과 수고로 구성된다. 이 결과들은 무한하다. 왜냐하면 행위가 어떤 장소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은 모든 반작용이 연쇄작용이 되고 모든 과정이 새로운 과정의 원인이 되는 끝없는 그물망의 매개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행위는 스스로 행위할 수 있는 존재에 작용하기 때문에, 응답이 아닌 반작용은 언제나 새로운 행위가 되어 그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행위에도 영향을 미친다.[23]

위와 같이 행위는 응답 아닌 반작용을 일으킨다. 응답은 행위자가 원하는 답이 돌아오는 경우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게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응답만 있다면 무한한 연쇄작용이 발생하지 않는다. 행위자에게 고통을 일으키는 경우는 그의 행위가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또 다른 행위를 불러일으키는 경우이다. 이러한 반작용은 무한한 연쇄작용을 일으키기 때문에 결과는 끝이 나지 않는다.

나아가 행위의 연쇄작용은 정해져 있는 체제, 제한된 구조, 폐쇄된 관계나 집단을 허물려는 경향을 지닌다. 즉 제한, 경계, 한계 등을 폐기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24] 이러한 성격을 아렌트는 행위의 무제한성이라고 지칭한다. 따라서 무제한성은 행위 결과의 끝없는 연쇄작용에서 비롯해서 제한을 허물고 계속해서 새로운 관계를 확립하려

22) 같은 책, 243쪽.
23) 같은 책, 252쪽.
24) 같은 책, 252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는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무제한성은 행위의 예측불가능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예측불가능성은 행위가 인간관계 속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그 결과를 누구도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달리 말해 예측불가능성은 행위가 새로움을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려준다. 행위는 제한을 허물려고 하기 때문에 정해진 구조나 관계에서는 그 결과를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의 예측불가능성 때문에 환원불가능성이 발생한다. 환원불가능성은 행위를 통해서 시작된 연쇄과정을 발생하기 이전의 원상태로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경우는 다원성에서 어떤 행위가 시작됐는데, 전혀 의도 하지 않은 결과가, 특히 죄를 짓게 되는 결과가 초래되면 행위자가 자의적으로 그 결과를 잊어버릴 수도 있고, 책임을 회피할 수도 있을지언정, 그가 이미 행한 것을 행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릴 수는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행위가 가진 이러한 성격들, 즉 무제한성, 예측불가능성, 환원불가능성은 모두 인간이 타인과 함께 살기 때문에 발생한다.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행위자는 정확한 응답이나 원하는 응답을 바라기 어려우며, 그의 행위는 전혀 알 수 없는 새로운 행위를 일으키기 때문에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기 어렵다. 심지어 원하지도 않은 잘못을 저지르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본다면 사람들과 함께 살기보다 차라리 고립되어 사는 것이 더욱 긍정적으로 보인다. 고립의 조건 속에서 작업인은 작업 과정의 지배자로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는 다원성에서 각각의 행위자는 앞서 말한 행위의 과정을 의도적으로 통제하거나 지배할 수 없다. 만약 누군가가 그 과정을 통제하고 지배하려고 한다면 그는 마치 작업인처럼 타인의 자유나 개성을 배제하고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켜서 군림하려는 것과 같다. 이는 다원성이 파괴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다원성에서 행위자는 행위 과정의 지배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지배할 수 없는 자로 있다. 이러한 행위 과정에 대해 지배권이 없는 자를 비주권자라고 한다. 비주권성은 행위자는 행위 과정을 의도적으로 통제하거나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달리 말해 행위자는 결과에 대한 주인으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비주권성에서 행위자는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다.[25] 아

25) 아렌트 행위 개념과 관련하여 행위를 자유의 관점에서 언급하는 논문들은 많다. 그렇지만 비주권성과 자유를 함께 논의하고 있는 논문들은 많지 않다. 박인철, 「자유의 현상학적 이념: 아렌트와 레비나스의 자유 개념 비교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제71집, 철학연구회, 2005. 김은순, 앞의 논문(2004). 박준호,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렌트에게서 새로운 시작은 자유의 실현이다. 시작은 전에 없던 새로움이 개시되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아렌트에게 행위한다는 것은 새로움을 개시하는 것이고 곧 자유롭다고 하는 것과 같다.[26] 이때의 자유는 타자의 개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기 자신과만 있는 자유가 아니라, 거꾸로 타자와의 공존 속에서 나타나는 자유를 의미한다. 그는『과거와 미래 사이』에서 자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한다.

> 우리가 모든 정치이론 속에서 당연시하고, 심지어 전제정을 찬양하는 사람들까지도 여전히 고려해야만 하는 이 자유는 인간이 외부의 강제로부터 도피하여 자유롭게 느끼는 내적 공간인 '내적 자유'(inner freedom)와는 정반대이다. 이 내적 느낌은 외적 현시없이 존재하기 때문에 정의상 정치적으로 부적합하다.[27]

여기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아렌트의 자유는 외부와의 관계 속에서 또는 외적 현시와의 관계 속에서 실현된다는 점이다. 그의 이러한 생각은 이사야 벌린(I. Berlin)의 타자의 개입이 없는 상태인 소극적 자유와는 상반되는 것이다.[28] 그리고 인간의 자유가 정치적 영역을 떠난 곳에서 시작되었으며, 타인과의 관계가 아닌 자기 자신과의 대화 속에서 경험된다고 주장해왔던 철학적 전통과도 다른 것이다.[29]

아렌트의 자유는 타인과 함께 있는 다원성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자유는 행위 과정에 대한 비주권자들 사이에서 말을 시작하고 행위를 개시할 때에 실현된다는 것이다. 비주권성 속에서 행위자는 자신이 결코 의도하지도 않았고 통제할 수도 없는 어떤 결과가 초래되었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그 행위자에게 현상된다. 그는 그것을 지각하고 기억할 수 있다. 기억된 것은 그가 새롭게 말하고 행위할 수 있게 한다. 즉 행위자는 자유를 실현하는 것이다. 행위의 본질을 이루는 측면들, 즉 예측불가능성, 환원불가능성, 비주권성은 인간으로 하여금 행위의 결과를 알 순 없기 때문에 불확실하지만 계속적으로 타인과 함께 말하고 행위하게 함으로써 자유를 실현케 한다. 그러한 본질적인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는 지속될 수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정치의 지속이 어떤 목적 하에 지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

앞의 논문(2009). 류강민,「한나 아렌트의 정치적 인민의 정체성과 연대성-행위·사유·판단 이론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26) 김비환, 『축복과 저주의 정치사상』, 102쪽 참조.

27) 아렌트,『과거와 미래사이』, 서유경 옮김, 푸른숲, 2005, 200쪽.

28) 김희정, 「한나 아렌트의 자유 개념과 페미니즘-정치적 주체와 공적 영역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 133쪽 참조.

29) 아렌트,『과거와 미래사이』, 214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정치는 어떠한 목적이 없다. 목적이 있다는 것은 정치가 수단화된다는 것을 뜻한다. 정치는 목적이 없기 때문에 어떠한 척도도 있을 수 없다. 설령 어떤 종류의 목적을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오로지 공적 영역의 존속과 그 안에서 형성되는 의미의 지속이다.[30] 의미의 지속은 공동 세계에서 살아가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지각하고, 기억하며, 이야기하는 활동을 통해서 보장된다.

## 제3절 다원성으로서의 행위

공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행위의 성격들이 알려주는 중요한 점은 인간은 타인과 함께 살아가며,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기 때문에 행위자는 행위의 분명한 시작에서 예측할 수 없는 결과까지의 과정을 그가 통제할 수 없다. 이러한 과정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타인을 억압하는 것과 같다.

아렌트는 세계에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을 다원성이라고 지칭한다. 다원성은 행위의 근본적인 조건이다. 다원성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 행위의 근본조건은 다원성으로서 인간조건, 즉 보편적 인간(Man)이 아닌 복수의 인간들(men)이 지구상에 살며 세계에 거주한다는 사실에 상응한다. 인간조건의 모든 측면들이 다소 정치에 관련되어 있지만 특별히 다원성은 모든 정치적 삶의 '필요조건'일 뿐만 아니라 '가능조건'이라는 의미에서 절대적 조건이다.[31]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정치는 서로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구현되기 때문에 다수의 사람들은 정치를 위한 필요조건이다. 또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 세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각각의 관점, 생각을 드러낼 때에 정치는 발생한다. 다양한 관점들은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다. 이러한 점에서 다수의 사람들과 그들의 다양한 관점들을 함축하는 다원성은 정치를 위한 절대적인 조건이다.

모두 지상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전에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 온 존재들이다. 새로움의 출현은 이미 존재하고 있던 것들로부터는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나타났다는 것

30) 김선욱,「한나 아렌트의 정치 개념-"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관계를 중심으로」,『철학』, 제67집, 한국철학회, 2001, 232쪽 참조.
31) 아렌트, 『인간의 조건』, 56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을 알려준다. 그래서 새로운 탄생은 예측가능성을 벗어난다. 한 사람의 탄생은 유일한 탄생이다. 그는 탄생에서 죽음까지 자신만의 고유한 서사를 갖는다. 고유성은 그가 이제까지 살아 왔던 그 누구와도 다르며, 앞으로 살 누군가와도 다르다는 것을 알려준다. 이러한 점에서 모든 인간은 저마다 다른 고유한 사람이라는 점에서만 동일하다.[32] 세계에 서로 다른 사람이 함께 산다는 점이 행위의 기본 조건이 된다.

그러므로 다원성은 인간의 동등성(equality)과 차이(distinction)이라는 성격을 지닌다.[33] 세계에 태어난 다수의 사람들은 모두 인간이라는 동일한 범주에 속하기 때문에 동등하다.[34] 존재적으로 누군가가 더 우월하다거나 더 하등하지 않다는 말이다. 그렇지만 각각이 고유한 서사를 지닌다는 점에서는 차이가 난다. 고유한 서사는 타인과 함께 말하고 행위하면서 형성된다.

> 사람은 말과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과 단순히 다르다는 것을 넘어 능동적으로 다른 사람과 자신을 구분한다. 말과 행위는 인간이 물리적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서로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양식이다.[35]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말과 행위는 사람들 간의 차이를 밝혀 준다. 다원성이 사라지는 경우는 다수의 인간을 보편적인 하나의 인간으로 환원시키기 위해 말이나 행위에 의해 드러나는 차이를 배제했을 때이다. 다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의 관점, 하나의 목적, 하나의 질서가 인간사를 '지배'할 때 정치는 필연적으로 파괴된다. 이러한 조건은 고립이라는 조건과 동일하다. 다원성을 제거하려는 시도는 결국 공적 영역을 제거하려는 시도와 동일하다. 전제정치가 바로 그러한 경우이며, 플라톤이 이상 국가의 형태로 제시했던 다수에 대한 철인왕의 일인 지배가 해당된다. 플라톤적인 지배 개념은 이후 정치사상에 뿌리 깊은 전통으로 자리 잡아 가장 사회적인 형태의 정부, 즉 관료제에

---

32) 같은 책, 57쪽 참조.
33) 같은 책, 235쪽.
34) 권정우는 동등성을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한다. 하나는 공통감각을 의미한다. 공통감각이 없다면 인간은 서로 이해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말과 행위라는 공통의 지반이 동등하게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권정우의 두 번째 해석은 비판의 여지가 있다. 말이나 행위를 하지 못하는 태아, 갓난아기, 장애가 있는 사람은 그러한 공통의 지반에 있을 수 없는 존재들인가, 그래서 동등한 존재가 될 수 없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권정우,「대중에서 정치적 인간으로-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인간관에 대한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31쪽.
35) 아렌트, 『인간의 조건』, 236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이르기까지 지속되었다. 아렌트는 관료제의 특징인 익명의 지배(domination of nobody)야 말로 가장 잔인하고 독재적인 지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36]

다수에 대한 일인의 지배 또는 전체에 대한 하나의 지배가 잘 작동하려면 공론 영역에서 구성원들은 각각의 개성을 배제하고 마치 모두가 한 사람인 것처럼 조직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사람들이 자유롭게 말하고 행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시키고, 이미 주어지거나 정해진 행동 기준들을 잘 따르게 한다는 것이다.

플라톤에게 행동의 기준을 부여하는 사람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는 철학자이다.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을 지배할 수 있다. 반대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앎이 없는 사람은 지배자의 명령을 실행하는 사람이 된다. 플라톤은 인간 행위의 영역에서 지식(앎)과 행위의 분리, 그리고 부차적으로 발생하는 명령과 복종이라는 위계의 모델을 사적인 가정의 영역에서 발견했다. 가정의 주인과 노예에 관계에서 알 수 있듯이, 가장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이었고, 반대로 노예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알지는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명령을 실행하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플라톤은 이러한 사적인 가정의 유형을 공적 영역으로까지 확대시켜 모든 시민을 한 가족의 구성원이 되게 하려 했다. 아렌트는 그가 가정에서 통용되는 원칙을 폴리스에도 적용하고자 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37] 사적 영역의 공적 영역으로의 확대는 사실상 정치의 본질적인 조건인 행위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과 동일하며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과 같다. 플라톤의 국가에서 시민의 자격이 없는 사람들의 역할은 지배자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는 것과 자신의 사적인 일에 집중하는 것이다. 반대로 공적 활동은 사유하는 철학자의 몫이 되고, 정치는 "시기의 적절성을 고려하여 중대한 문제를 시작하고 지배하는 방법을 아는 것"[38]이 된다. 아렌트는 모든 전제정치의 공통점으로 "공론 영역에서 시민을 추방하는 것, 그리고 지배자만이 공적인 일에 관여해야 하며 시민들은 사적인 일에 종사한다"[39]는 것을 말하고 있다.

가정의 경험을 빌려와 폴리스를 하나의 "대문자의 인간(man writ large)"[40]으로 이상화하고 지식을 지배 및 명령, 그리고 행위를 행동 및 복종과 동일시했던 플라톤의 정치철학은 사실상 정치가 목적-수단이라는 구도를 이루고 있음을 뜻한다. 그는 목적-

36) 같은 책, 93쪽 참조.
37) 같은 책, 287쪽 참조.
38) 같은 책, 287쪽.
39) 같은 책, 285쪽.
40) 같은 책, 288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수단 구도를 작업 활동에서 발견했다. 작업의 경험은 그의 이데아론에 더욱더 설득력 있는 근거로 작용한다.

작업은 두 부분으로 나뉜다. 즉 "앞으로 나올 생산품의 이미지나 형상(eidos)을 지각하는 부분과 그다음 수단을 조직해서 실행하는 부분으로 나뉜다."[41] 작업의 과정은 작업인이 도달해야 할 모델의 인도 하에 이루어진다. 결과물은 이 모델에 따라서 만들어진다. 모델은 청사진과도 같다. 생산물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있으면서 동시에 앞으로 만들어져야 하는 모델이 없다면 작업은 이뤄지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모델은 작업인 외부에 있고, 실제의 작업 과정에 앞서서 있다. 중요한 점은 제작 과정을 이끄는 모델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이다.[42] 아렌트는 이러한 모델의 영속성이 플라톤 영원의 이데아론에 영향을 끼쳤음을 말한다.[43]

작업은 분명한 시작과 예측가능한 끝이 있다. 작업의 과정이 진행되는 한, 작업인은 자신뿐만 아니라 대상에 대한 지배자로 머문다. 즉 그는 "장차 만들 생산물의 이미지를 가지고 혼자서 자유롭게 생산할 수 있고 자신의 손으로 만든 작품에 홀로 맞서서 다시금 그것을 마음대로 파괴할 수 있다."[44] 작업의 근본조건은 삶 자체도, 다원성도 아닌 고립이다.

작업의 경험에서 발견된 믿을만한 근거는 불확실한 의견의 세계 또는 가상의 세계로부터 확실한 진리의 세계 또는 실재의 세계로 이끄는 철학자의 인도를 정당화해 주었다. 이것은 플라톤의 『국가』에 나타난 동굴의 비유에서 잘 나타난다. 동굴 안을 떠나 동굴 바깥의 세계로 올라가 지성의 눈으로 선의 이데아를 본 철학자는 다시 되돌아와 선의 이데아를 이념으로 삼아 인간사(동굴 안)를 불확실성으로부터 해방시켜 참된 세계로 인도하려 한다. 그는 폴리스를 진리와 이상이라고 하는 토대 위에 올려 세우려 했다.[45]

그러나 아렌트의 관점에서 "폴리스를 이상적으로 재조직하는 일은 철학자가 탁월하

41) 같은 책, 289쪽.
42) 같은 책, 199쪽.
43) 같은 책, 200쪽.
44) 같은 책, 202쪽.
45) 박 혁은 플라톤의 이러한 기획을 정치의 선험화라고 표현하고 있다. 박 혁, 「플라톤과 서구 정치철학 전통의 성립-서구 정치철학 전통 안에 있는 반다원적 요소들에 대한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비판-」, 『철학사상』 제33집,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9. 255쪽. 김성준도 플라톤은 정치를 철학이 실현되어야 될 영역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그의 기획은 반정치적이라고 본다. 김성준, 「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 연구: 행위, 자유, 무제한성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14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게 통찰한 지도에 따라야 하고 또 그 일은 철학자의 삶의 방식을 가능하게 하는 목적 이외에 어떤 다른 목적도 갖지 않는"[46] 것이다. 철학자 플라톤은 폴리스의 질서와 안정을 위해서는 인간사에서 펼쳐지는 모든 종류의 불확실성, 우연성을 극복해야 했기 때문이다. 철학자가 다시 인간사로 되돌아왔다 하더라도 그에게 최고로 중요한 것은 여전히 선의 이데아였다. 그래서 철학자에게 중요한 경험은 이데아를 바라봄, 즉 관조(thēoria)이다. 플라톤에게 시·공간을 초월해 있는 이데아는 결코 "말로 할 수 없는"(arrhēton)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아렌트의 시각에서 동굴 밖의 영원하고 신적인 것에 대한 철학자의 경험은 인간사의 영역 밖에서만 발생하는 경험이다. 그러므로 그리스 시대에 가장 시끄러운 곳으로 여겨졌던 폴리스는 플라톤의 조용한 이상 국가와 상반된다. 플라톤에게서 의견과 진리는 결코 양립할 수 없는 질적으로 서로 다른 것이었다.

플라톤이 다원성의 근본적인 조건인 인간의 고유한 말(의견)과 행위를 그토록 부정적으로 간주했고 정치에 지배의 관점을 끌어들인 이유는 사실 앞서 말한 인간 행위에 내재한 본질적인 성격들 때문이었다.

46) 아렌트, 『인간의 조건』, 63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제3장 사회적인 것의 의미

## 제1절 사적 영역의 확대로서 사회

고대에 존재했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은 중세에 붕괴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붕괴는 사회적인 것의 등장과 더불어 발생했다. 사회적이라는 말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적 동물(zōon politikon)이라는 말을 세네카가 사회적 동물(animal socialis)로 번역하여 정치와 사회를 동의어로 사용하면서 나타났다.[47] 이후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는 말은 표준적인 번역어로 쓰였다. 라틴어 socieatas는 동일한 목적을 위해 사람들이 동맹하는 것을 의미했다.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사회는 목적에 의해 형성된 사적인 가족 결합체와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48] 사적인 성격을 지니는 사회는 중세에 처음 등장하여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을 흐리기 시작했고, 근대에 사회는 공적 영역까지도 완전히 잠식하여 그 구분을 파괴했다.

『인간의 조건』에서 해석할 수 있는 아렌트의 일관된 문제의식은 정치의 상실이다. 정치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간의 구분이 파괴될 때 사라진다. 근대 사회의 등장은 이전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간의 구분을 불분명하게 했고, '사회적'인 것이라는 현상은 사회에서 지배적인 현상이 되었다. 사회적인 것은 사적인 것(삶의 필연성, 소유, 노동)이 사회 구성원들에 의해 공적인 관심사가 된 것을 의미한다.[49] 고대에는 공적 영역으로부터 감춰져야 할 것들로 여겨졌던 삶의 필연성, 필연성을 위한 활동, 생계를 위한 수단 등의 문제들이 근대 사회에서는 구성원들에 의한 공적 관심사가 되면서 더 이상 감춰져야 할 것이 아니게 된 것이다.

거대 가족 결합체로서의 사회는 언제나 하나의 이익 또는 하나의 목적이 지배한다. 사회의 목적은 곧 사회 자신의 진보 또는 발전이다. 진보나 발전의 지표는 바로 생산성이다. 사회는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목적으로 삼는다. 전체의 생산성을 증진시키려면 사회 구성원들을 하나의 인간으로 환원시켜야 한다. 즉 그들을 단일 주체로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단일 주체는 결국 인간이라는 종, 인류(man-kind)로 파악된다.

---

47) 같은 책, 74쪽 참조.
48) 같은 책, 81쪽 참조.
49) 같은 책, 85쪽, 121쪽 참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애덤 스미스(A. Smith)는 자유 시장 경제 체제에서 개인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경제 활동을 한다고 보았다. 그런데 그 개인은 자신이 의도하지는 않았던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킨다. 스미스는 개인의 이익 추구와 공공의 이익 증진 사이의 간극의 조화를 보이지 않는 손(an invisible hand)이라는 원리로 설명했다.[50] 개인들은 이 원리에 이끌려 전혀 의도하지 않았던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렌트에 따르면 그의 이론은 새로움의 요소, 즉 예측불가능성이 개입되어 있다.[51] 자기 이해에 의해서만 행동하는 인간은 저마다 다른 욕구를 지녔으며 추구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다.

개인과 사회의 간극은 인간을 사회화된 인간 또는 사회적 존재로 파악했던 마르크스에 이르러 해소된다. 마르크스의 사회는 아렌트에 따르면 "개인적 실존과 사회적 실존 사이의 간극을 제거했을 때 이루어진다."[52] 가장 개인적 존재로서 인간은 동시에 사회적 존재가 된다. 사회화된 인간에서 중요한 점은 인간은 개별적인 인간으로 규정되지 못하며, 사회 구성원들과의 관계 속에서 규정된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사적 영역에서의 소유로부터 자신을 규정했었던 그리스인들과는 다르게 근대 개인은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근대 개인은 전체와 관계한다. 아렌트에 따르면 마르크스의 유적존재(Gattungswesen)는 "인간이 곧 종의 구성원으로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53]한다. 그런데 사회의 구성원임을 일깨워 주는 활동은 결국 노동이기 때문에 이 활동은 사회적 존재를 이루는 핵심이 된다. 즉 "개인의 삶을 유적 삶과 결합 안에서 실행기 위해서는 어떤 다른 특별한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노동 자체가 요구된다."[54] 사회 전체의 생산성을 끊임없이 늘리기 위해서는 본래 사적 영역에서 개별적 삶을 유지하기 위해 이뤄졌던 노동 활동이 공적 영역에 등장하여 인류의 삶을 위해 이뤄지는 활동으로 변모되어야 한다. 사회는 노동이 가장 가치 있는 활동으로 등장하는 곳이다. 사회 구성원들은 어떤 활동을 하건 간에 그것을 생계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파악한다.

> 사회가 삶의 과정 자체를 공적으로 조직한다는 것은 아마도 새로운 사회적 영역이 비교적 최단시간 안에 모든 근대의 공동체를 노동자와 직업인의 사회로 변형

50) 스미스, 『국부론』, 김수행 옮김, 비봉출판사, 2018, 552쪽 참조.
51) 아렌트, 『인간의 조건』, 95쪽 참조.
52) 같은 책, 144쪽.
53) 같은 책, 같은 곳.
54) 박 혁, 「마르크스 사상에 내재한 반정치적 요소들에 대한 아렌트의 비판」,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제8권, 2014, 91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시켰다는 사실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난다. 달리 말하면 이 공동체들은 삶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하나의 활동 주변으로 즉시 집중되었다. (.....) 단지 살기 위해서 상호의존 한다는 사실이 공적인 의미를 획득하고 단순한 생존에 관련된 활동이 공적으로 등장하는 곳이 '사회'이다.[55]

생산성이라는 하나의 목적 앞에서 개별 인간의 개성이나 차이는 중요하지 않다. 인류의 삶의 과정에 방해가 될 뿐이다. 사회는 궁극적으로 단일성(one-ness)에 뿌리박고 있다. 평준화 경향을 띠는 사회는 결국 행위의 가능성을 배제한다. 근대에 경제학과 행동과학으로서의 사회과학이 발달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아렌트에 따르면 경제학은 "사람들이 사회적 존재가 되어서 한결같이 일정한 행동유형을 따르며, 이러한 규칙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비사회적, 비정상적이라고 간주될 경우에만 과학적 성격을 획득"[56]한다. 행동과학은 인간과 인간의 모든 활동을 "조건반사적으로 행동하는 동물의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이 목적"[57]이다. 중요한 점은 경제학이든 행동과학이든 모두 사람들로 하여금 예측불가능한 행위를 말소시키고, 사회적 형식에 맞는 일정한 행동을 하게 하는 데에 있다. 사회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는 인간 행위의 결과는 예측이 가능한 행동으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인간의 행위의 본질적 측면을 없애고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바꾸려는 플라톤의 기획과도 유사하다.

고대 폴리스에서 시민들은 자신의 고유한 개성을 드러내서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밝혔다. 개성이 인격과 동일시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에서 개인은 자신이 사회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지위와 동일시된다. 사회의 척도에 비춰봤을 때 사회적으로 얼마나 높은 지위에 앉아 있는지 또는 얼마나 낮은 지위에 앉아 있는지가 인간을 대변해 준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시민은 공론 영역에서 말과 실천으로 탁월함을 드러내 보임으로써 타인과 자신을 구별하였다. 그러나 근대에는 그리스적인 탁월함을 발견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개별 인간의 뛰어남보다는 인류의 진보를 강조하고, 차이보다는 동질화를 강조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삶의 긴박한 필연성에 묶여 있는 노동 활동은 타인과의 구별을 밝혀주는 말이나 행위와 동일한 활동이 될 수 없다.

>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실은 사회가 모든 발전단계에서 행위의 가능성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그 대신에 사회는 각 구성원으로부터 일정의 행동을 기대하며, 수많

55) 아렌트, 『인간의 조건』, 99쪽.
56) 같은 책, 94쪽.
57) 같은 책, 98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은 다양한 규칙들을 부과한다. 이것들 모두는 구성원을 '표준화'시켜 행동하도록 하는 경향성을 가지며 자발적인 행위나 탁월한 업적은 갖지 못하게 한다.[58]

따라서 사회의 등장으로 결국 공적 영역은 사라진다. 다원성이 아닌 단일성에 토대를 두고 있는 사회는 모든 생활 영역에 걸쳐 표준적인 행동 기준을 제시하여 행위하지 못 하게 하고, 생계를 위한 활동만을 가치 있는 활동으로 여겨 사람들을 노동에만 전념하게 한다. 아렌트의 시각에서 사회 속의 인간은 인간적인 것을 실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존재이다. 그들의 삶의 위상은 동물적 삶과 유사한 차원으로 떨어진 것이다.

## 제2절 부의 증진과 정치의 상실

그런데 사회의 출현으로 인한 공적 영역의 파괴는 사실 사적 영역도 파괴됐다는 점을 시사한다. 공적 영역이 사라졌다는 것은 사적 영역도 사라졌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이다. 정치는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이 함께 양립할 때 구현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사적인 소유(property)가 사회 전체의 부(wealth)로 이전되어 동일시되는 근대의 현상과 상응한다. 소유에서 부로의 이전은 근대에 왜 노동이 공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는지를 확연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현상이다.

소유에서 부로의 이전 현상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소유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고대에 소유는 세계에서 자신의 거처를 지녀서 시민으로서의 자격을 갖추는 것을 의미했다. 소유는 사물들뿐만 아니라 필연성 때문에 형성된 혈연관계를 포함하기 때문에 고유한 것이었다. 또 가정을 둘러싼 울타리는 공적 영역으로부터 숨을 수 있는 믿을 만한 공간을 마련해 주었다.[59] 밥 먹기, 성 관계, 출산 등은 공적으로 관심 받을 만한 사항이 되지 못한다. 이러한 사적인 삶은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하는 사항들이다. 그리고 사적 영역은 공적 영역에 나갔던 시민이 다시 돌아와 타인과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를 숙고하고, 기록함으로써 생각의 깊이를 상실하지 않게끔 해주는 개인적인 공간 역할을 했다.[60] 공적 영역의 관점에서 볼 때 사적 영

58) 같은 책, 93쪽.
59) 같은 책, 125쪽 참조.
60) 같은 책, 같은 곳 참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역은 타인과의 객관적인 관계가 부재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박탈적 성격을 갖지만, 사적 영역 자체가 지니고 있는 이러한 특징들은 비박탈적 성격을 갖는다.[61]

개별 인간의 정체성을 확립시켜주는 소유는 그가 공적 영역에 참여하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혀주는 토대가 되었다. 그래서 고대에 시민을 추방하는 것은 단순 재산의 몰수를 의미했던 것이 아니라 거처의 파괴를 의미했다.[62] 세계 안의 자리를 의미하는 거처의 파괴는 결국 세계와의 관계성 파괴를 의미한다.

고대에 사적 영역은 인간이 정치적 삶을 살기위해서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하는 조건이었다. 다시 말해 인간이 공적 영역에서 자유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필연성을 충족시킬 수 있고,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는 내밀한 공간인 사적 영역이 공론 영역과 함께 공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 공론 영역의 관점에서는 자유의 박탈이라는 부정적 측면만이 두드러지는 사적 영역의 필연성은, 이른바 인간의 보다 높은 소망이나 열망의 절박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추진력을 가진다. 이것은 항상 인간의 모든 부유한 공동체를 명백히 위협하는 무관심과 창발성의 상실을 방지하고자 한다. 필연성과 삶은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서, 필연성이 완전히 제거된 곳에서는 삶 그 자체가 위협받는다. 필연성의 영역은 자유의 확립을 통해 자동적으로 제거되는 것이 아니다. 필연성의 제거는 오히려 자유와 필연성의 경계를 불분명하게 할 따름이다.[63]

인용문에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은 신체를 지녔기 때문에 생물학적 필연성을 충족시켜야만 하고, 이러한 충족 위에서 자유는 구현될 수 있다. 필연성은 결코 부정될 수 없고 제거되지 않는다. 필연성을 무시하는 것은 결국 정치적 삶을 위협하는 것이다. 고대에 공적 영역에서의 정치적 삶이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사적 영역의 구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개인적인 것과 관계하는 소유와는 반대로 부는 “사회 전체의 연간수입에서 그가 차지하는 몫”[64]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전체와 관계한다. 그리스인들은 자

61) 사적 영역의 비박탈적 성격에 주목하고 있는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주미진,「한나 아렌트의 정치적 행위 개념과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21쪽. 김은순,「아렌트(H. Arendt)의 정치행위이론과 시민사회」,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58쪽. 박성아, 「아렌트 정치행위론과 생활정치-한국여성민우회 생협 활동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14쪽.
62) 아렌트, 『인간의 조건』, 115쪽 참조.
63) 같은 책, 124쪽.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신의 고유한 장소성인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노동을 했지만 부유해지려고 노동을 하지는 않았다. 그리스인들의 시각에서 부를 축적하는 일에 열중하는 것은 정치적 삶을 살기 위한 자유를 희생시키는 것과 같다. 부를 위해 노동에 전념하는 것은 인간적인 것을 포기하고 필연성의 노예가 되는 것과 같았다.[65] 그러나 근대인은 더 많은 부를 차지하기 위해 노동한다.

사회는 생산성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는다. 이때 생산성의 지표는 바로 부이다. 그러므로 사회는 부의 증식을 목표로 삼는다고 바꿔 말할 수 있다. 그런데 부의 특징은 생계를 위해 소비된다는 점이기 때문에 그것이 끊임없이 축적, 증식할 수 있으려면 부가 자본(capital)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무한한 생산 과정이 요구된다. 아렌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 부가 개인의 생애동안 지속된다 할지라도 그것은 언제나 사용되고 소비되는 대상으로 머문다. 자본의 주요 기능은 더 많은 자본의 증식인데, 부가 이러한 자본이 될 때만, 사적 소유는 세계에 내재하는 영속성과 동등한 성격을 가지게 되거나 그것에 가까운 것으로 된다. 그러나 이 영속성의 본질은 다르다. 그것은 안정적 구조의 영속성이기보다는 과정의 영속성이다. 이러한 영속적인 부의 축적과정이 없다면, 부는 즉시 사용과 소모를 통하여 분해되는 반대의 과정으로 전락한다.[66]

고대에 세계 속에서 차지하는 장소를 의미했던 소유는 과거의 세대로부터 전해져 오고, 현재 세대가 머물며, 미래 세대를 위한 자리였다. 세계 안의 소유는 인간과의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한다. 소유는 소비의 대상과 관련이 있다기보다는 차라리 사용 물품과 관련이 있다. 소비 대상은 필요 충족을 위한 대상이기 때문에 생산되는 즉시 즉각적으로 없어진다. 사용 물품은 욕구나 필요에 저항하여 지속할 수 있다. 지속하는 사물은 인간의 삶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한다.[67] 지속성은 소비 대상으로 금방 부패해 버리는 부가 자본이 될 때 확보된다. 그러나 이때의 지속성은 사물의 지속성이 아니라 부 축적 과정의 지속성이다.

과정은 행위에 의한 시작은 있으나 어떠한 결과가 초래될지는 알 수 없는 불분명한 과정이다. 끝이 불분명한 이유는 과정 속에 불확실한 요소, 우연적인 요소 등이 개입되

64) 같은 책, 같은 곳.
65) 같은 책, 119쪽 참조.
66) 같은 책, 122쪽.
67) 같은 책, 194쪽 참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기 때문이다. 그런데 근대에 이러한 인간 행위의 과정적 성격이 자연에 적용되기 시작했다.[68] 인간은 과정의 결과를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 과정을 일으키는 주체로 인식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을 바꿔 말하면 과정은 인간이 없으면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한다. 자연에 대한 인간의 영향력은 실험에서 시작되었다. 인간은 실험실에서 자연의 과정을 인위적으로 만들어서 모방할 수 있었다. 근대에는 고대와는 다르게 진리는 더 이상 관조가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만 알려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기 때문이다.[69] 그래서 근대에 중요한 것은 최종 생산물(확실한 결과)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생산 과정 자체에 대한 관심이다.

그러나 자연 자체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확실한 앎의 대상이 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반해 역사학은 오로지 인간 활동의 산물을 다루었다. 비코는 인간이 확실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영역이 역사라고 생각했다.[70]

> 우리의 역사 개념에 일어난 보다 직접적인 결과는, 동일한 곤경으로부터 발생한 긍정적 형태의 주관주의였다. 인간은 자신이 만들지 않은, 주어진 세계를 인식할 수 없는 듯 보이지만 적어도 스스로 만든 것만큼은 알 수 있음에 틀림없다. 이 실용주의적 태도는 이미 충분히 설명한 대로 비코가 역사로 관심을 돌리면서 근대적인 역사의식의 아버지 가운데 한 명이 된 이유이다. (.....) 비코는 여전히 '자연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역사의 영역으로 전향했다. (.....) 자연이 신에 의해 '만들어진' 것처럼 역사는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믿음이 그렇게 만든 것이었다.[71]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근대에 인간은 자신이 만든 것만을 알 수 있다는 역사의식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의식은 확실성의 근거가 바로 인간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사회의 발전, 부의 증진, 생산성 증대 현상의 모델이 되었던 인간의 경험은 인간 신체에서 일어나는 생물학적 과정이었다. 생명 과정은 모든 인간 신체에서 일어나는 가장 확실한 과정이기 때문이다.[72] 따라서 앞서 말한 부 축적 과정은 근대인들에게 신체의 생물학적 과정처럼 이해되었다. 생명 과정은 인간이 자신의 삶을 계속 생산

68) 같은 책, 295쪽 참조.
69) 나카마사 마사키,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을 읽는 시간』, 김경원 옮김, arete, 482쪽 참조.
70) 아렌트, 『인간의 조건』, 366쪽 참조.
71) 아렌트, 『과거와 미래 사이』, 82-83쪽.
72) 아렌트, 『인간의 조건』, 173쪽 참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하는 한 끝임 없이 지속한다. 여기에 부응하는 활동은 노동밖에 없다.

마르크스는『독일이데올로기』에서 역사가 만들어지기 위한 전제들을 말한다.[73] 그는 모든 역사의 첫 번째 전제를 인간의 생명에 두고 있다. 살아야 하는 인간은 신체의 욕구나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물질적인 수단을 생산한다. 그러나 최초의 욕구 충족 및 충족 수단은 새로운 욕구를 유도해낸다. 그에 따르면 새로운 욕구 창출은 최초의 역사적 행위이다. 이것이 두 번째 전제이다. 세 번째 전제는 그 자체로 역사를 갖고 있는데 인간은 자신의 삶을 매일 재생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맺음으로써 새로운 생명을 생산해 낸다. 여기서 사회적이라는 말은 "어떤 조건 아래,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목적으로 하든지 간에, 여러 개개인들의 협업"[74]을 뜻한다.

마르크스에게 노동은 이중적인 성격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즉 자기 삶의 재생산과 그 이상의 생산이라는 점에서 이중적이다. 그에 따르면 생산 관계는 언제나 사회 전체의 발전과 결합되어 있으며, 이 관계는 생산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마르크스의 이러한 생각에서 중요한 것은 한 사람의 삶을 재생산하는 것 그 이상의 생산, 즉 잉여이다. 잉여를 창출하는 것은 노동력이다.

> 노동생산성은 노동의 생산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힘'에 있다. 인간의 힘은 자신의 생계와 생존수단을 생산하고 소진되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잉여' 즉 자신의 '재생산'에 필요한 것 이상을 생산할 수 있다. 노동생산성을 설명해주는 것이 노동 자체가 아니라 인간 '노동력'의 잉여이기 때문에 이 용어의 도입은 마르크스의 전체 체계 가운에 가장 독창적이고 혁명적인 요소를 구성한다. (.....) 자신의 재생산이 확보되었을 때도 노동력은 고갈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 이상의 삶의 과정의 재생산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삶 이외의 어떤 것도 '생산하지' 못한다.[75]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인간의 노동력은 한 사람의 삶을 재생산하고도 고갈되지 않는다. 이러한 노동력은 생산성의 원천이 된다. 아렌트는 마르크스의 이론에서 노동생산성은 다산성과 동일시된다고 말한다.[76] 원천이 고갈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의 생산성은 끝없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그것은 다산, 풍요로움, 풍부함, 과잉 등을 의미하게

73) 마르크스, 엥겔스, 『독일이데올로기1』, 박재희 옮김, 청년사, 1988, 56-58쪽 참조.
74) 같은 책, 58쪽.
75) 아렌트, 『인간의 조건』, 143쪽.
76) 같은 책, 162쪽 참조.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된다.

근대에 노동이 공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이유는 생명 과정, 즉 삶의 과정이 공적인 의미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노동이 공적인 의미를 획득한 근대에 개별 인간은 자기 삶을 재생산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류의 삶을 생산하는 과정에 흡수된다. 개인은 집단적 삶을 생산해 내는 구성원으로서, 즉 사회적 존재로서 살아간다. 모든 인간이 전체 삶의 과정에 예속되어 노동을 할 때에 과정은 끊임없이 영속할 수 있다.

삶을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과정에서 정치적인 것은 살아남기 어렵다. 부의 증진, 사회의 발전, 인류의 삶 앞에서 인간은 세계 안에 속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고유한 거처까지 박탈당하기 때문이다. 거처와의 관계가 상실된 인간은 전체의 삶을 위한 노동만을 반복할 뿐이다.

## 제3절 현대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 회복의 가능성

정치의 회복과 지속을 위해서는 사적인 거처가 없는 사람들의 자리가 마련되어야 한다. 거처는 인간과 세계와의 긴밀한 관계성을 내포하고 있다. 인간이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그들은 공적인 세계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긴다. 그러나 오늘날 사회에서는 여전히 거처 없는 사람들이 부유하고 있다.[77]

아렌트는『인간의 조건』에서 정치의 상실이 사회의 출현으로 인해 초래되었다고 보고 있다. 정치 회복의 가능성은 오늘날 사회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문제들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때 열릴 수 있다. 정치는 세계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에 대해 다수의 사람들이 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정치의 회복을 위해서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을 어떻게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할지를 아렌트의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관한 연구 논문들을 통해 고찰해 보자.

정순준은 현대사회의 문제로 개인들의 사유하지 않음을 말한다.[78] 현대사회의 개인

77) 좁은 땅에 높은 인구밀도로 세계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곳 중 하나인 홍콩에는 맥난민(McRefugee)이 크게 늘고 있다. 맥난민은 24시 패스트푸드점인 맥도날드의 맥과 난민이 합쳐진 용어인데, 패스트푸드점에서 잠을 자는 사람들을 일컫는다. 이들은 대부분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천정부지로 높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다. 관련 기사 출처: 김준기, [여적]맥난민, 경향신문, 2018.09.1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9112118005&code=990201.

78) 정순준, 「사회적인 것과 고독-한나 아렌트의 사회적인 것에 대한 한나 피트킨의 비판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2.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들은 사회적 기준이나 가치를 무분별하게 따른다. 이들은 상상력을 통해 타인의 마음에 들어가 보거나 타자성과 접하는 자기 성찰이 결여되어 있다. 정순준은 이러한 문제들의 원인으로 자신의 이익에만 매몰되고 특정 기준에 무분별하게 순응하는 사회적인 것을 말한다.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유의 순간으로서 고독을 제시했다. 정준순의 이러한 진단과 대안은 정치적인 것의 회복을 위해서는 인간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따르는 사회적 기준이나 가치에 대해 스스로 사유하는 것의 중요성을 말한 것에 의의가 있다. 구지숙은 우리 사회가 도구적 합리성과 유용성만을 중시하는 생활방식이 지배적인 현상이 되었다는 점을 말한다.[79] 그래서 사람들은 단순히 안락함과 행복함만을 추구하게 되었고, 삶의 다양한 가치가 상실되었다고 말한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그는 경제 영역이 공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 사회적인 것을 말하며, 공적 영역의 회복을 위한 조건으로 타인과 함께 자유롭게 토의하는 대화의 장이 마련되어야 함을 말한다. 구지숙의 이러한 진단과 대안은 경제적 가치가 지배적인 현상이 된 현대사회에서 타인과 함께 자유롭게 토의하는 대화의 장이 얼마나 절실히 요구되는 사안인지를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타인과 함께 형성하는 대화의 장은 인간이 주체적로 판단하고 말함으로써 다양성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순준과 구지숙의 고찰은 공통적으로 정치의 상실이 사회에 의해서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정치의 회복을 위해서 타자성이 개입된 사유나 정치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이러한 고찰들은 정치 회복을 위한 사회적인 것이 지닌 가능성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는 한계가 있다.

김홍중은 68혁명이 혁파하고자 했던 사회적인 것들, 즉 복지국가, 관료제, 시장, 대중문화, 상식, 인종주의 등의 문제들을 해소했던 것은 아렌트가 생각했던 대로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였다고 본다.[80] 그리고 1980년대 이후 전개되는 세계는 사회적 안전망이 사라진 불안의 시대가 출현하면서 사회적인 것의 대안이 묘연하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 시대의 고통이 아렌트처럼 사회적인 것의 존재 때문에 발생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사회적인 것의 부재 때문에 발생했다고 본다. 또 그는 다른 글에서 핵무기, 핵발전소, 핵폐기물과 연관된 재난들이 인간의 미래에 대한 신뢰를 해체한다고 말한다.[81] 그에 따르면 인간이 인간의 미래이기 위해 요청되는 인간을 둘러싼 환경의 영구

79) 구지숙, 「한나 아렌트의 근대 이해와 근대성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80) 김홍중, 「사회로 변신한 신과 행위자의 가면을 쓴 메시아의 전투: 아렌트의 '사회적인 것'의 개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제47집, 한국사회학회, 2013.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한 안정성이 동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미래 개념의 파산을 선고한다.

김홍중의 이러한 생각들은 현대사회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에 정치적인 것이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다시 숙고하기를 요구한다. 특히 사회적 재난들이 이미 발생했고,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세계가 앞으로도 여전히 있을 것이라는 믿음이 깨진 현 상황에서 정치적인 것에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를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인간이 세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살아가는 한, 말과 행위가 가지고 있는 힘, 즉 정해진 인간관계와는 다른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 주어진 세계와는 다른 세계를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김선욱은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이 개념적으로는 분리가 가능하지만 현실에서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고 보고 있다.[82] 이를테면 그는 어떤 마을회관의 회의에서 다리를 어디에 건설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공적 토론의 대상이지만, 원하는 장소에 다리를 건설할 때 어떠한 공법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인가 하는 문제는 전문가에 물어보아야 하는 사회적 문제라고 말하고 있다. 정미라는 세월호 사태가 현대사회의 공공성 부재를 반증한다고 본다.[83] 그는 정치 행위가 펼쳐지는 공적 영역의 회복을 위해서는 누구도 생존으로부터 위협받지 않는 사회적 구조를 만드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윤은주는 현대사회에서 나타나는 빈곤과 같은 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행위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정치적 행위주체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스스로 정체성을 확립하고, 적절한 사회의 테크놀로지 구현을 위한 방안을 생각해야 함을 말한다.[84]

김선욱, 정미라, 윤은주의 통찰들은 오늘날 사회에서 정치의 회복과 지속을 위해서는 사회적인 것을 전적으로 배척할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가장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마련하는 것은 사회적인 것의 역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또 정치적 활동을 위해서 생존의 위협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경제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은 사회적인 것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오늘날 사회에서 누구도 경제문제를 마냥 간과할 수만은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

아렌트의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에 관한 연구들은 오늘날 정치 회복을 위해 무

81) 김홍중,「미래의 미래」,『문학동네』제19호, 문학동네, 2012.
82) 김선욱,「한나 아렌트의 정치 개념-"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관계를 중심으로」,『철학』제67집, 한국철학회, 2001. 김선욱,『정치와 진리』, 책세상, 2010.
83) 정미라, 「'공적 영역'의 상실과 현대사회의 위기-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을 중심으로-」,『철학논총』제81집, 2015.
84) 윤은주, 「정치적 행위에서 사회적인 것의 수용」, 『한국여성철학』제23권, 한국여성철학회, 201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엇을 고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많은 점을 시사한다. 정치의 회복을 위해서는 다수의 사람들이 공동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그들이 함께 말하고 행위할 수 있는 장이 형성되어야 하고, 그 안에서 각각의 다양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또 타인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과 올바른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 사람들이 공적 영역에서 관점의 다양성을 드러내고 정치적 판단을 멈추지 않을 때 정치는 지속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가 실현되려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정미라의 입장처럼 정치를 위해서는 누구도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는 사회적 구조가 갖춰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거처 없는 사람들, 생계의 위협을 받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 발전에 의해 증진된 부의 분배, 분배의 적용 범위 설정, 실질적인 정책을 실행하는 사회의 역할이 요구된다. 그렇지만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할 것인지, 그것이 왜 필요한지, 인간의 안식처가 어떠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정치적 논의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치의 회복과 지속을 위해서는 정치와 사회의 구분이 마련되어야 한다. 더불어 현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상보 관계가 형성되어야 한다. 전자는 한 영역이 다른 한 영역을 잠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후자는 정치, 사회가 선택적 영역이 아니라는 점을 유념하기 위해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제4장 결론

지금까지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에 나타난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을 구분하여 각각의 의미를 고찰해 보았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정치적인 것의 의미를 살펴보았고 3장에서는 사회적인 것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정치적인 것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정치는 다수의 사람들이 공적인 장소에서 행하는 구체적인 공적 활동이다. 아렌트는 이러한 정치가 구현되었던 곳을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에서 발견하고 있다. 그리스 시대에 폴리스는 공적 영역을, 가정은 사적 영역을 뜻했다. 폴리스는 자유, 가정은 필연성이라는 원리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그리스인들은 영역 간의 구분을 설정함으로써 사적 영역의 어두움이 공적 영역을 잠식하거나 공적 영역의 빛이 사적 영역으로 침투되는 것을 방지하였다. 정치적 삶은 이러한 구분 속에서 펼쳐질 수 있었다. 공적 영역에서 드러나는 인간의 활동은 행위의 모습을 띠었다. 행위는 무제한성, 예측불가능성, 환원불가능성, 그리고 비주권성이라는 성격들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성격들은 인간은 항상 타인과 함께 살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행위는 결국 다원성으로 귀속된다.

3장에서는 사회적인 것의 의미를 살펴보았다. 고대의 실재했던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간의 구분은 중세에 무너지기 시작하여 사적 영역이 공적 영역으로까지 완전히 확대된 근대 사회가 출현하면서 파괴되었다. 사회는 사적인 가정처럼 하나의 목적이 지배한다. 부의 증진, 생산성 증대는 사회가 추구하는 하나의 목적이 되었고, 인간의 다양성을 파괴한다. 다양성의 파괴는 정치의 상실로 이어진다. 이러한 사회의 발전은 개인의 소유까지도 파괴하기에 이른다. 사회 전체의 부의 관점에서 개인적인 소유는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사회의 발전은 고대에 사적 영역이 지니고 있었던 중요성, 즉 인간과 세계의 관계성을 해지한다.

오늘날 여전히 거처가 없는 사람들은 출현하고 있다.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의 구분이 사라지고, 정치가 상실된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정치가 회복될 수 있는지를 고찰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정치는 오늘날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들에 대해 다수의 사람들이 공적으로 논의할 때에 회복되고 지속될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인 것이 지배적인 현상으로 대두된 현대사회에서 정치가 자신의 고유한 영역을 지켜나기는 너무나도 어렵다. 거처가 없거나 생존의 굴레에 얽매여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급급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삶을 제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쳐두고 공적 영역으로의 참여를 촉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정치의 회복을 위해서는 사회의 역할이 요구된다. 이를테면 사회 발전에 의해 초래된 경제적 불평등의 해소를 위해 부의 분배, 분배의 적용 범위 설정, 실질적인 정책을 실행하는 사회의 역할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어떻게 공정하게 분배할 것인지, 그것이 왜 필요한지, 인간의 안식처가 어떠한 중요성을 지니고 있는지에 대한 정치적 논의도 함께 진행되어야 한다.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참고 문헌

### 1. 한나 아렌트 저작

아렌트, 한나, 『정신의 삶 1: 사유』, 홍원표 옮김, 푸른숲, 2004.
_____, 『과거와 미래사이』, 서유경 옮김, 푸른숲, 2005.
_____, 『인간의 조건』, 이진우 · 태정호 옮김, 한길사, 2015.
_____, 『전체주의의 기원』, 이진우, 박미애 옮김, 2017.

### 2. 관련 저작

김비환, 『축복과 저주의 정치사상』, 한길사, 2001.
김선욱, 『정치와 진리』, 책세상, 2010.
나카마사 마사키, 『한나 아렌트의 『인간의 조건』을 읽는 시간』, 김경원 옮김, arete, 2017.
마르크스, 칼 · 엥겔스, 프리드리히, 『독일이데올로기1』, 박재희 옮김, 청년사, 1988.

### 3. 관련 학위 논문

구지숙, 「한나 아렌트의 근대 이해와 근대성 극복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6.
권정우, 「대중에서 정치적 인간으로-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인간관에 대한 고찰-」,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김성준, 「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 연구: 행위, 자유, 무제한성을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김은순, 「아렌트(H. Arendt)의 정치행위이론과 시민사회」, 경희대학교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4.
김희정, 「한나 아렌트의 자유 개념과 페미니즘-정치적 주체와 공적 영역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2007.
류강민, 「한나 아렌트의 정치적 인민의 정체성과 연대성-행위·사유·판단 이론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박성아, 「아렌트 정치행위론과 생활정치-한국여성민우회 생협 활동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NGO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박준호, 「한나 아렌트의 정치행위이론 분석-제기된 쟁점들의 종합과 분석을 중심으로-」,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이태멘, 「한나 아렌트를 통해서 본 정치적 무관심과 무사유」, 서강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4.

정순준, 「사회적인 것과 고독-한나 아렌트의 사회적인 것에 대한 한나 피트킨의 비판을 중심으로」,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12.

주미진, 「한나 아렌트의 정치적 행위 개념과 참여민주주의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3,

## 4. 관련 학술지 논문

김선욱, 「한나 아렌트의 정치 개념-"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관계를 중심으로」, 『철학』, 제67집, 한국철학회, 2001.

김홍중, 「미래의 미래」, 『문학동네』 제19호, 문학동네, 2012.

_____, 「사회로 변신한 신과 행위자의 가면을 쓴 메시아의 전투」, 『한국사회학』 제47집, 한국사회학회, 2013.

박인철, 「자유의 현상학적 이념: 아렌트와 레비나스의 자유 개념 비교를 중심으로」, 『철학연구』 제71집, 철학연구회, 2005.

박 혁, 「사멸성, 탄생성 그리고 정치-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에게 있어서 사멸성과 탄생성의 인간조건이 같는 정치적 함의 」, 『민주주의와 인권』 제9호,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9.

_____, 「플라톤과 서구 정치철학 전통의 성립-서구 정치철학 전통 안에 있는 반다원적 요소들에 대한 한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비판-」, 『철학사상』 제33집,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09.

_____, 「마르크스의 사상에 내재한 반정치적 요소들에 대한 아렌트의 비판」, 『공공정책과 국정관리』 제8권, 2014.

윤은주, 「정치적 행위에서 사회적인 것의 수용」, 『한국여성철학』 제23집, 2015.

정미라, 「'공적 영역'의 상실과 현대사회의 위기-한나 아렌트의 정치철학을 중심으로-」, 『철학논총』 제81집, 새한철학회, 2015.



Collection @ chosun

조선대학교
CHOSUN UNIVERSITY

## 5. 관련 기사

김준기, [여적]맥난민, 경향신문, 2018.09.1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809112118005&code=990201)



Collection @ chosun